



어머니 바다 땅 母·海·地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향인 해남 행촌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 재벌화가 한홍수 작가.

작가가 들려주는 '광주의 기억 圖'

ACC·북클럽 문학동네 김형중·김민정 등 참여 6월 1일 오후 4시 진행



김형중



김민정

작가들이 그려내는 광주의 기억은 어떤 모습일까? 광주 출신 저자가 풀어내는 광주 이야기를 따라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오는 6월 1일 오후 4시 ACC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에서 '광주의 기억 圖'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파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광주의 기억 圖'는 ACC와 북클럽문학동네가 공동 기획했다.

김 평론가 외에도 '아름답고 쓸모없기'의 김민정 시인, '몰락의 에티카'의 신형철 평론가 그리고 문헌의 사진작가도 같이 자리해 다양한 광주의 기억도가 그려질 예정이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특별 제작된 '광주의 기억 圖' 굿즈 세트(에코백, 배지 6종)가 제공된다. 에코백에는 ACC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극장, 대인시장, 사직공원, 양림동 펜션마을, 충장로 우체국, 푸른길공원 등 광주 대표 명소가 그려져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ACC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2만원은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2019년 ACC 유료티켓 및 컬처스 구매 영수증 소지자, 2019년 ACC 아카데미 교육생 등은 현장에서 자료증빙 후 무료입장 가능하다. 문의 062-601-4433.

/북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랑스서 27년만의 귀향... "고향 해남 풍경 담았죠"

바다가 바다라 보이는 작업실 화병엔 짙레꽃이 놓여있었다. 산책을 하다 마당에서 작가가 꺾어온 것이다. 개인전 개막을 1주일 앞두고 막바지 작업중인 작품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하얀꽃은 하나의 '신포'처럼 느껴졌다. 1992년부터 프랑스에서 활동중인 서양화가 한홍수(61) 작가는 '지금' 고향 해남에 머물고 있다.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욱)이 운영하는 '이마도 스튜디오'에서 6개월 전부터 작업중이다.

음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임하도에 자리한 '이마도 스튜디오'는 낡은 폐고를 리모델링해 수련관으로 쓰다 4년전부터 작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중이다. 그는 뱃자리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스튜디오에 머물며 자신의 작업 세계를 돌아보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중이다. '어머니 바다 땅 母·海·地' (30일-6월 30일)를 주제로 해남 행촌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 그는 대흥사 등 해남의 풍경과 어머니 등 해남 사람을 그린 20여점을 전시한다.

붉은 빛이 강렬한 바닷가 풍광을 그린 '이마도', 초록빛이 쏟아져 내리는 청보리밭, 회색빛 대흥사 풍경 등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재료가 가장 궁금해진다.

"프랑스에서 전시를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재료예요. 유화라고하면 두터운 마티에르를 연상하는데 저는 부드러운 붓으로 수십 번의 붓질을 하며 화면을 만들어내 전혀 유화처럼 보이지 않아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만들

서양화가 한홍수 작가 개인전

30일~6월 30일, 해남 행촌미술관

6월 1일 개막식... 뮤지컬·토크쇼

고 싶어 오랫동안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흰색을 쓰지 않아 탁한 기운이 없고, 화면이 맨질맨질한 게 TV 평면 화면 같은 질감이 있죠."

그래서 대흥사를 품은 두륜산의 산세 등 그의 작품은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지만 '아련하고 몽환적 분위기'가 어우러져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 때 그리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도 그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또렷한 이미지 대신 흐린 이미지를 보여 무언가 느낌을 찾아보려 애쓰고 자신의 상상을 더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가 해남에 등지를 튼 건 파리에서 서용선 작가를 만난 게 인연이 됐다. 서 작가는 그가 해남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자신이 머물렀던 이마도 스튜디오를 비롯해 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파리로 떠나기 전, 오지못한 생각했던 고향에 문화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갔고,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

전시할 기회가 주어져 해남에서 작업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학교 시절, 그는 미술선생님이 보여주던 화집에 푹 빠져 화가의 꿈을 키웠다. 미술특기생으로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고향을 떠나고 대학 졸업 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 하나만을 품고 무작정 파리로 갔다. 힘든 생활이 이어졌다. 10년은 에펠탑 등에서 거리화가로 일했고 그 후에야 그림도 팔리고 수입이 생겨 화가로 길에 전념하게 됐다. 그때 만난 거리화가로 오랜 친분을 쌓았던 유명한 중국 조각가 왕두와는 3년전 유네스코 창립 70주년 기념 2인전을 열기도 했다.

고향에 돌아온 직후 두달간은 좀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산책을 하며 진달래, 동백 등 온갖 꽃들을 작은 스케치북에 그리기 시작했다. 화폭에 다 그리지 못할 정도로 흑하고 시간이 지나갔다. "자연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대흥사에 머문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이곳에 머물면서 지금까지 그렸던 파리 풍경이 조금은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미 도시에 익숙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마을을 산책하고 작업실에서 보이는 앞길섬을 무심히 바라보며 마음을 비웠죠. 그러자 사물과 자연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대흥사의 매력을 알려면 잠을 자보아한다고 하셔서 그곳에 묵었어

요. 새벽에 바라본 절집 풍경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죠. 두륜산은 너른 품같았어요. 결국 고향에 머문 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그 느낌을 담아 이번 전시작들을 작업했습니다."

87세가 된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며 그는 행복했다. 늘 그리웠던 어머니의 얼굴은 파리에 있을 때 상상상으로 그린 적은 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옛날 분이시라 별 말씀이 없으시죠. 전시도 하고 그러니 아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좋아하시긴 해요. 제가 신경써 드려야 하는데 지금도 반찬 만들어 주시고 잘 돌보시죠(웃음)"

6월 1일 오후 5시 열리는 개막식은 특별하다. 같은 해남 출신인 박명성 뮤지컬 감독이 함께 기획한 행사다. '맘마미아!' 캐릭터 드로잉 퍼포먼스, 뮤지컬 배우 김경선·소프라노 남라헬이 함께하는 '노래가 있는 뮤지컬 여행', 무용가 이경화의 춤, 한 작가와 박 감독의 토크쇼 '추억의 앨범 속 땅굴 이야기' 등이다.

한 작가는 "좋은 작가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인지도가 해외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건 드문 일"이라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작가들이 서로 돕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7월 1일부터는 영은미술관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9월 전시회도 연다. 문의 061-533-3663.

/해남·글 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람의 파랑새, 파랑새의 사람' 도립옥과미술관, 박석신 초대전

도립전라남도옥과미술관이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가 박석신(목원대 회화과 외래교수) 작가 초대전을 연다.

오는 7월 18일까지 '사람의 파랑새, 파랑새의 사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박 작가는 붓 대신 꽃, 풀, 흙, 숯 등 자연재료를 그림을

그린다. 풀뿌리를 뽑거나 꽃을 묶어 사용하는 거친 느낌의 초근으로 사물을 크로키하는 과정에서 유쾌한 반전을 만날 수 있다.

박작가는 tjb대전방송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회합 기행'에 참여,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그림으로 기록해왔다. 그는 다양한 지역의 향토색과 문화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 행복 찾기의 다양한 모습을 마음에 담았고 자신의 작품 세계의 지속적인 주제로 자리한 '추상적인 행복'을 '파랑새'라는 구체적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양명동과 소야병동을 찾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갤러리 겸 무인카페 '꼬찌 꼬찌'를 운영하는 등 나누는 삶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원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박 작가는 지금까지 16차례 개인전을 갖고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1-363-7279. /김미은 기자 mekim@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featuring international flags, award logos (CES, BIG Innov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 San Primo Hair Extensions), listing awards, contact number 062 673 5858, and location in Gwangju.